

MUSIC 인터넷으로 만나는 한국의 작곡가들

이석렬 | 음악평론가

이제 21세기의 청중들은 음악회에서만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연주회장에 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도 가상의 인터넷 세계에서는 분명히 청중의 모습을 하고 작곡가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를 맞이해 '청중'과 '연주회장' 같은 개념들은 보다 넓고 입체적인 차원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인터넷으로 음악을 들려주는 작곡가들

필자가 대학을 다닐 때 한국의 창작음악을 접하는 방법은 주로 세 가지였다. 하나는 발표회장에 직접 가서 작품을 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창작음악을 녹음해서 만든 음반을 접하는 것이었다. 라디오를 통해 창작곡들이 방송되는 일도 있었지만 방송 시간에 맞춰 귀를 기울이고 녹음을 하기란 쉽지 않았다.

여기에 덧붙여 현대의 디지털 문명을 타고 창작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등장했다. 이것은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이어서 헤드폰 하나만 구입하면 가능해진다. 바로 컴퓨터의 인터넷망을 통해 창작음악을 감상하는 것이다.

2005년 4월 초 현재까지 인터넷상에 자신의 창작음악을 올려놓은 한국의 작곡가는 많지 않다. 그렇지만 그런 작곡가의 수와 작품의 양은 증가 추세에 있고, 작곡가들의 작품세계를 알리는 효율적인 방법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필자는 늦은 밤 이 원고를 쓰고 있다. 고즈넉한 밤에 원고를 쓰면서 창작음악을 찾아가는 '인터넷 항해'를 하려고 한다. 이는 인터넷상에서 창작음악을 발견하는 체험을 독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역작을 인심 좋게 인터넷상에 공개한 작곡가들을 찾을 수 있고, 지인들의 음악을 타인들과 함께 듣기 위해 올려놓은 이들도 만날 수 있다.

'청중'과 '연주회장'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을 확대하는 인터넷상의 여행은 이렇게 시작된다.

이제 창작음악을 인터넷상에서 찾기 위해 기본적인 검색을 시작한다. YAHOO! KOREA 검색 엔진 (<http://kr.yahoo.com/>)에서 검색어로 '창작음악 듣기'를 친다. 그러면 웹문서상에 처음으로 작곡가 이건용의 사이트가 나타난다. 사이트의 이름은 <작곡가 이건용 Composer, Lee Geon-Yong 음향자료>이고, 클릭하여

들어가면 인터넷상의 주소가 <<http://www.knua.ac.kr/leegy/media.htm>>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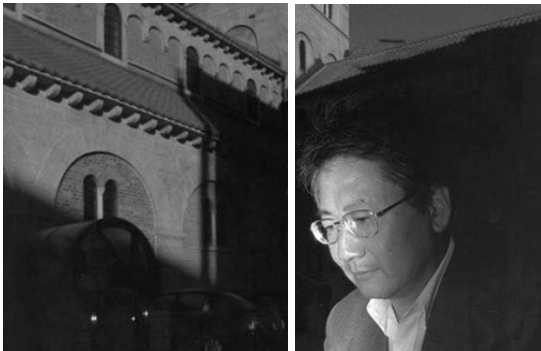
작곡가 이건용의 사이트는 근래에 이르기까지 발표한 음악들을 Windows Media Player로 들을 수 있게 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2000년대까지 작곡가가 만든 적지 않은 음악들을 마우스 한 번의 클릭으로 들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위한 1장 피아노: 김수련>에서 '듣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Windows Media Player가 작동되면서 깔끔한 음질로 이건용의 피아노 곡이 재연된다.

또한 작곡가 이건용의 사이트에서는 일정량의 악보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했다. '악보자료'란을 클릭하면 <피아노를 위한 1장 A Movement for Piano(1993. 11) [17면]>, <상주 모심기 노래에 의한 변주곡 A Variation on a Korean Peasant Tune(1997. 6) [11면]> 같은 악보들이 공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악곡으로는 윤동주 시에 의한 <십자가>가 눈에 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Adobe Acrobat Reader 프로그램만 설치되어 있다면 작곡가 이건용의 음악을 악보로 접하고 분석할 수 있다.

컴퓨터음악 쪽에서 작곡가를 찾아보자. YAHOO!

작곡가 이건용 씨와 그의 사이트



KOREA 검색 엔진에서 검색어로 '컴퓨터음악 작곡가'를 친 후 검색을 하다보니 <컴퓨터음악-쿠키의 뮤직세계-천성광>이란 재미있는 이름이 나온다. 클릭하여 <<http://user.chollian.net/~chun4270/site1016.htm>>으로 들어가 보면, 컴퓨터 음악과 관련된 유사한 사이트들이 한곳에 모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작곡가 심진섭의 사이트(<<http://myhome.naver.com/jsshim11/>>)로 들어가 보자.

그의 사이트에서 'Product'란을 찾아서 들어가면 전자 악기의 표현력을 깃들여 만든 작품들을 들어볼 수 있다. 작품 <목소리와 몸짓, 테이프 그리고 전자음향을 위한 "인성 신성/人性 神性">, 그리고 <창(唱)과 피리 그리고 전자음향을 위한 "노을">등을 감상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곡에서는 작곡가 자신의 육성이 생생하게 들려온다.

역시 <컴퓨터음악-쿠키의 뮤직세계-천성광>에 있는 작곡가 황성호의 홈페이지(<<http://www.knua.ac.kr/hwang/index.htm>>)에 들어가면 작곡가가 만들어낸 많은 수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몽환적인 배경음악으로 시작되는 이 사이트에서 'Works'란에 들어가 <일반음악, Acoustic Music> 부분을 선택하면 파란색으로 쓰여진 작품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런 부분들을 클릭하면 <백두산 환상곡>, <파랑도> 같은 음악들을 감상할 수 있고 작품의 탄생 배경과 해설도 볼 수 있다. <전자음악, Electro-Acoustic Music> 부분에서는 <TV Scherzo> <피아노와 전자음향을 위한 "Silhouette"> 같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작곡 동인들의 사이트

지금까지는 개인 작곡가들의 홈페이지를 탐방해 보았다. 그렇지만 특정 장르의 음악이나 작곡 동인들의 음악이 인터넷상에 올려진 경우도 있다.

인터넷으로 가곡을 감상한다고 하자. 현재 활동 중인 작곡가들의 가곡을 감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로 <내 마음의 노래, <http://krsong.ivyro.net/>>를 꼽을 수 있다. 이 사이트로 들어가면 '가곡 감상실' 난에서 '독창곡'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안삼, 이종록, 백병동, 이건용, 황성호 등 현재 활동 중인 한국 작곡가들의 가곡을 감상할 수 있다.

작곡 동인인 <작곡마당>의 홈페이지 (<http://www.zakmadang.com/>)에서 배경음악은 자신들의 성향을 대변하고 있다. 클래식, 재즈, 국악, 탱고 등 여러 장르의 음악들이 사이좋게 연결된다. <장르의 벽을 넘어서>라는 이들의 음반 테마에 맞게 여러 장르의 음악들이 모자이크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작곡마당>의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많은 음악파일과 악보들이 있다.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음악단체 <창악회>의 사이트 (<http://perform.kcaf.or.kr/changak/>)로 가보자. <창악회>의 홈페이지는 창악회 소개, 창악회 연혁, 창악회 사람들, 창악회 사업, 음악 듣기의 5개의 난으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Music, 음악 듣기'를 선택해 보자.

인터넷상에서 만날 수 있는 음악 사이트

- 작곡가 이건용 (<http://www.knua.ac.kr/leegy/media.htm>)
- <컴퓨터음악-쿠키의 뮤직세계-천성광>
→ (<http://user.chollan.net/~chun4270/site1016.htm>)
→ 작곡가 심진섭의 사이트(<http://myhome.naver.com/jsshim11/>)
→ 작곡가 황성호의 홈페이지 (<http://www.knua.ac.kr/hwang/index.htm>)
- 가곡 → <내 마음의 노래, <http://krsong.ivyro.net/>>
- 작곡 동인인 <작곡마당>의 홈페이지 (<http://www.zakmadang.com/>)
- 음악단체 <창악회>의 사이트 (<http://perform.kcaf.or.kr/changak/>)
- 피아니스트 김경옥의 홈페이지 (<http://pianistkim.com/rec.asp>)

이제 창악회가 웹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곡들이 나타난다. <3인의 타악기 주자를 위한 스케르쾅/최승준> <"목마 숙녀"/ 김은혜> <클라리넷과 첼로를 위한 반사/길일섭> <관현악 시선(詩選) Poetry for Orchestra/이만방> 등 모두 8곡을 들을 수 있게 했다. 이만방의 곡 <관현악 시선(詩選) Poetry for Orchestra>를 선택하여 'File' 부분을 클릭하면 장엄한 관현악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필자가 발견한 인터넷상의 음악 파일 중에는 한국의 창작음악을 연주자가 올려놓은 경우도 있었다. 피아니스트 김경옥의 홈페이지(<http://pianistkim.com/rec.asp>)에서 작곡가 백병동의 작품 <연계 (連繼) : VERKNUPFUNG>를 Windows Media Player로 감상할 수 있었다.

인터넷 감상실의 의미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까지 시공을 초월하여 작곡가가 음악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는 악보와 음반이었다. 중세 시절 그레고리안 성가가 악보로 적히기 시작하면서 악보 속에 음높이와 음의 길이가 표준화되기 시작했다. 그후 악보란 매체는 연주자를 통해 음악의 모습을 후대에도 전달하는 작곡가의 충신 역할을 했다.

20세기에 들어와 연주자의 녹음이 음반에 담겨 다른 국가에도 퍼져나가는 획기적인 시대가 열렸다. 덕분에 우리도 외국의 창작음악을 많이 듣게 되었으나 그 수입량은 충분치 못했다. 감상 장소도 음반이 있는 감상실이나 주택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현재 인터넷상에서 접하는 작곡가들은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그들은 외국인들에게도, 또 전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도 정말로 빠른 시간 내에 자신들의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적

한국의 창작음악 사이트들도 창작동인들의 목적과 친분이 존중되는 한도 내에서 한곳에 모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하면 보다 많은 인터넷 청중들이 검색 과정에서 소모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단체나 작곡가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피아니스트 김경옥 씨

으로도 바람직한 일이어서 학생들은 기성세대가 만든 창작음악을 인터넷상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감상한다.

외국의 대표적인 음반·도서 판매사이트인 아마존(www.amazon.com)이나 타워레코드사(http://www.towerrecords.com/)는 많은 예술 음악들의 샘플 파일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음반 판매를 위해 맛보기로 곡의 일부만을 들려주는 것이다. 음질도 작품을 감상하기에 충분치 않다.

그렇지만 필자가 여기에 언급한 작곡가들과 동인들의 사이트는 대부분 곡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음질도 감상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다. 앞으로 더 많은 작곡가들이 디지털 문명의 흐름을 타고 자신들의 음악을 인터넷상에 올려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가지 예상할 수 있는 고무적인 현상은 인터넷 상에서 청중과 작곡가 간에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다. 인터넷 감상실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특별한 친분이나 서신을 제외하면 청중과 작곡가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 힘들었다. 그렇지만 인터넷으로

음악을 들은 청중이 이메일과 게시판을 통해 작곡가에게 직접 감상문과 제안안을 보낼 수 있게 되어 양자간의 새로운 인터랙티브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문화예술』지의 지면을 빌어 필자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악회와 작곡 동인들이 모여 있는 사이트 연합체의 설립이다. 인터넷상에서는 유사한 취향과 목적을 가진 사이트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 매니아의 사이트들, 이국적인 음식을 다루는 사이트들이 한곳에 모여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보다 분명히 하고 관심 있는 이들의 접근을 편리하게 한다.

한국의 창작음악 사이트들도 창작동인들의 목적과 친분이 존중되는 한도 내에서 한곳에 모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하면 보다 많은 인터넷 청중들이 검색 과정에서 소모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단체나 작곡가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21세기의 청중들은 음악회에서만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저녁 시간에도 바쁜 약속이 있어서 연주회장에 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도 가상의 인터넷 세계에서는 분명히 청중의 모습을 하고 작곡가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를 맞이해 '청중'과 '연주회장' 같은 개념들은 보다 넓고 입체적인 차원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여 웹상에서 더 많은 청중을 상대하고 불러들일 수 있을 것이다. ☺